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라

같이 벗어날 수 있다는데...

문 스님 법문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마음도 내 마음자리에 놓으면 다 공법으로 돌아가 조상도 후손도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이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항상 오늘’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곤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말입니다. 오늘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영령들이건 뭐건 모두, 내 일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전부 주인공 안에 다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겁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같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이 살아나가는 데도 걸림이 없고 애로가 없고... 걸림이 없다 하면 벌써 들어 아니게끔 융통성이 있게 돌아가서 공생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도 공심 공제 공용 공식으로 걸림 없이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뛰면 빠르고 느리게 뛰면 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뛰고 안 뛰고 가 없이 빠르게 생각하면 되고 빠르게 생각지 못한다면, 이해가 안돼서 느리다면 뭐든지 결정이 안 나고 적응이 되지 않죠. 이해가 돼야 뭐든지 결정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날으면 날는 대로 없어진다 해야 되나요? 날는 대로 들어 아니 다 이런 소립니다. 날어도 날어도 들어나지 않고, 들어 아니기 때문입니다.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령들을 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제로 된다면 정말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모든 게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평화스럽단 얘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무척 애들 쓰시고 살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들로 보지 않는다면, 들로 하지 않는다면 들로 보지 않는 것이고 들로 보지 않는다면 공생으로 되는 것이고, 공생으로 되면 공심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 본다고 해도 혼자 보지 않고 서로 더불어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심으로만 볼 수 있다면 불안(佛眼)이 되죠.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는 거고 심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 경지가 참 많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을 모두 여러분은 모르고도 올라가야 되죠. 모르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못하고 깨우치지 못했다고 ‘그거 우린 깨우치진 못해서 그걸 못해!’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동시에 그게 안팎으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만 돌아가신 영령들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남인데도 영령들이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세세생생을 아주 벗어날 텐데...’ 하고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꿈에도 보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일련 응해 줘야죠. 응해 주고, 응해 주는 동시에 하다못해 법당에 와서 절이라도 서너 번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공에다 다 합쳐서 등돌려서 그렇게 관하시면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내 믿음 주인공 하나가 겨자씨라던 일체제불을 다, 일체제불도 각처 각각에 부처님 상이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런 걸 다 이 거쪽 속에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모시고 쫓아다니면서 받들고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 증생들도 다 넣고 들어 아닌 까닭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체를 평평 다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흰 사이도 없고 넣은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어졌다. 또 꺼내서 풀어 줘도 풀어 준 사이가 없이 풀어졌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즉 공법의 도리인 것입니다.

외도가 되지 않으려면...

문 스님,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흔히 외도(外道)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외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어떤 이름에 팔린다거나 형상에 팔린다면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외도가 다른 게 외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미신적으로 돌리니까 미신인 것이지 내 마음이 미신이 아닌데 어찌 미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마음 속에는 바로 금강 같은, 즉 말하자면 태양 같은 마음의 그 빛이 종단하고 여여하고 아주 원만해서 항상 비추어 줄 수 있고 바깥으로 나 안으로나 항상 여여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종단합니다. 광대무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 안에다 불을 켜 놓아서 바깥에 비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독 안에 불을 아무리 켜 놔 보십시오. 바깥으로 비치지 않는 불이 무슨 소용이 있나.

다. 그런데도 그렇게 여여한 자부처의 그 능률하고 여여함을 두고도 코드를 거기다 쫓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코드를 안애다 쫓으십시오. 그리고 이름은 아무 이름이라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하고 이름을 부르면 벌써 바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인공!’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자기 안으로 ‘주인공! 당신은 여여하고 원만해서 뭐든 두루두루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비칠 수 있고, 여여하게 이 능력을 줄 수 있지 않아?’ 하고선 안으로 들이대세요. 생활불교를 하시려면.

만날 남한테 빌고만 다니지 마시고 무슨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재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삼살방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어디가 막혔으니, 부족이 막혔으니 이사를 못 가겠는데 어디로 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미신이 어되었습니까? 이런 외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데도 급급하고, 사랑을 하기에다 24시간 동안에 5분이고 10분이고 진정 사랑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데, 헛바퀴 돌듯 살아나가기도 어려운데 그것까

리들 집입니다. 안식처고, 그런데 단란하게 살고 여여하게 살지 못한 채, 남한테 이런 소리 듣고 바람이 부는 대로 쏠리다면 갈대와 같은 거지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 지구령 어리쎈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법계가 다 내 한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나

문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요? 이 몸이 형성이 될 때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물이 많은 사람은 물 같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이 융쳐서 된 거라고 하는 이치에 맞는 것이지요.

답 처음의 근본은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다 똑같지 않게 되는 게, 그것이 자기가 한 생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 때에 속상하다고 그냥 남을 때리고 발길로 차고 또 물어뜯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일 때는 물어뜯고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살펴보고 해서 그것이 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 불은 불대로 찾아가고 흙은 흙대로 찾아가고, 그래서 생겨날 때는 다시 인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거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다’ 이 러죠. 왜? 사람의 법칙으로는 이런 걸 정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할 수 없다’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안된다’도 없고 또 그 반면에 ‘된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유권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고 된다가 있고 안된다가 있으면 어떻게 자유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이러니 이러니 하기 이전에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해나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어놓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계기가 다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글거리는 것 같아

문 스님, 저희 집안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자주 생기고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자주



그림 · 최주현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기다 코드를 쫓으세요!

여러분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은 다 쫓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다가 코드를 쫓고 안으로다가 믿어와 쫓 텐데 바깥으로 믿는 다 이겁니다. 왜 타의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구합니까? 좌선을 한다고 앉았기만 해서, 또는 경을 아무리 읽고 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을 발견하고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모든 일체를 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 자유성을 보장하라 이겁니다. 자유성을 보장하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의 부처를 믿으면서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성의 어머니는 모두가 같이 돌아간다는 거, 무궁무진하다는 거, 원만하고 광대무변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늘름하고 여여한 것을 왜 내가 바깥에서 구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팩 앉아서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그냥 오팩 손을 쫓고 나 좀 잘되게 해 달라요 그래서 잘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 그 가운데에 있는 거기다 코드를 쫓으셔야 합니다. 참불성 자체는 꺼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가발전소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 자가발전소의 그 에너지는 무한량 나올 수 있는 에너지며 바로 밝은 달과 같고 해와 같다 이 소립니

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사람이 돼서 나오기도 어렵거늘,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냥 부적을 써서 붙여서 재수가 있게 한다, 아픈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 관재구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자기 마음에 모든 일체만법이 다 있거늘 어찌 그런 행을 합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 모르고 하는 것을 알게끔 자기가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런 말발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즉 그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해 봤던들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걸려서 항상 끄달리면서 그 삼계를 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법계를 다 싸고도는 이 대표인으로서의 인간이 없다면 대표인이 못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그 법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에, 여러분의 근본은 그 마음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용하면서 이 정원을 꾸며 놓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체가 다, 지구덩어리 하나가 바로 우

화를 많이 낸 사람은 화가 조금 더하고, 마음이 비포아져서 울기도 잘하고 그래서 돌아서고 하는 사람은 물의 습기가 더 많고, 욕심이 세고 남을 눌러서 잡아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흙의 정기를 더 많이 가져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것이 일일이 말로 하자면 그냥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네 마음에 담려 있으니 마음으로 결정을 짓고 마음으로 해결하면 그냥 그 고(高)와 집(集)은 없어지고 평도(平道)가 생긴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 주면 다 좋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또 그냥 뇌까리고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마음속에서 죽이 풀듯이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런 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응하고 서로서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고리 없는 고리가 이어지고, 그 모두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고리에 달려 있고 한 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 일체 증생이 다 말이예요. 그리고 다 똑같이 지수화풍으로 모습이 돼 있고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 도로 헤어져서 간다 이겁니다.

태어날 땐 지수화풍으로 모이는데 죽을 때는 지수화풍이 헤어진다 얘기도, 헤어져서 자기 본 고장으로 전부 찾아간다 이겁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바람으로 찾아가고 또 물은 물대로 찾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안의 조상님들을 모두 천도시키고 저의 집안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탄 축성을 보려고 한다면 가서 보는 사이도 없이, 들고 와서 보는 사이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정신계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와 정신계가 혼합이 돼서 같이 수레가 돌아가듯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같이 들 아니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수차에 얘기를 드렸지만,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온 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삼만 년 전 이라도 그것은 내 부모였으니까, 내 자식이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법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공부 할 때는 모습이 있어야만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모습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탑을 만들어서 조상들을 모시게 하는 것도, 모습이 없으니까 그 탑에 모습을 두고선 모두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탑을 지금 가지고 다니니까 내 탑 속에다 다 넣어도, 이 세상 만법의 만 증생들, 만 부처님들, 이런 분들을 다 넣고 다너도 손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치를 통통해서 아시려면 이걸 따라서 들 아니게 그냥 잡고 그렇게 해 가시면 그게 저절로 바탕이 되고 저절로 길이 터지고 저절로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남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악도 선도 들어 아니다. 그럼 악은 악대로 악하게 구는데, 만약에 나한테 파국을 때리고 악하게

